

자동세척 기능에 소음·냄새 해결 '음식물처리기' 시장 경쟁 가속화

소비자 편의성 높여 시장 선도
스마트카라, 기술력으로 신뢰 확보
휴롬, 악취저감 등 반영 2세대 선풍
삼성, 비스포크 더 제로 상표권 출원
LG, 지자체와 협력해 시장 진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로 '음식물 처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점유율 방어를 위해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대기업은 지자체와 협력하며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하루 발생량은 5만톤 이상이다. 그중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5000톤으로, 전체쓰레기 발생량의 약 28%를 차지한다.

현재 가정 내 음식물 처리기 보급률은 10% 미만이다. 다만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자체에서 음식물처리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음식물 처리기 시장은 지난해 6000억원 규모에서 전년 대비 3배 이상 커졌다. 올해 시장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음식물처리기 시장을 점유하던 중소·중견 기업도 점유율 유지를 위해 활발하게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업체인 스마트카라는 최근 15년간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신제품 '블레이드X'와 '스마트카라 400 프로2'를 출시했다. 이들 제품은 기존 음식물처리기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전기세, 소음, 냄새 문제를 개



스마트카라는 오는 30일까지 쿠킹 스튜디오 '라퀸 한남'에서 음식물처리기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스마트카라

선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스마트카라 400 프로 모델 기준 1회 전기료는 누진세 적용 기준 약 200원 내외다. 평균 소음은 약 26.4데시벨(dB)이다. 스마트카라 관계자는 "음식물처리기는 탈취력이나 편의성의 측면에서 높은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품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스마트카라는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현재 스마트카라는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누적 판매량 30만대, 누적 매출액 2100억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유지 중이다.

휴롬도 지난 5월 음식물처리기 2세대 제품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복합 활성탄 필터를 사용해 악취를 줄이고 자동 세척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출시 직후 약 2달간 판매량이 50% 이상 급증했다.

쿠쿠전자는 지난 4월 건조분쇄형 음식물처리기를 내놓았다. 밥솥 등 주방 가전을 개발하며 확보한 히팅 기술로 음식물의 수분을 99% 제거하고, 건조 과정에서 유해한 미생물을 99.9%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지난 6~7월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도 음식물처리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달 안산시와 자원순환 관련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40세대에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순차 보급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두달동안 가정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쓰레기 감량 효과를 검증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내년 초까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020년에 '더제로'라는 명칭의 음식물 처리기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2022년에는 '비스포크 더 제로'라는 상표권을 추가로 출원하며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T "과도한 불법 스팸, 발송 제한"

불법스팸 대응 전담 TF 신설

SK텔레콤은 전사 차원의 불법 스팸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불법 스팸 문자로 발생하는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SKT는 최근 불법 스팸 차단에 위해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자체적인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SKT는 우선 송·수신 문자에 대해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한다.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본인인증 서비스에 플리

케이션(앱) PASS에서 제공 중인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 강화·확산에 나선다. 기본 스팸 필터링 기능뿐 아니라 신고된 데이터 기반의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추천하는 '키워드 추천', 인공지능(AI) 스팸 의심 문자를 선별해 알려주는 '미끼 문자 AI 탐지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TF는 앞으로 불법 스팸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사이버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 간 공조 체계를 마련해 불법 스팸 분류 기준과 각사의 스팸 차단 솔루션의 상호 벤치마킹하는 등 협력을 통해 사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추석 대비 인구밀집 지역 1000곳 통신 점검

KT, 13~18일 네트워크 집중관리

KT가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계를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KT는 이 기간 중 16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 주요 통신 시설에 배치한다. 또 과전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인 '싱글 뷰(Single View)'를 도입한다.

싱글 뷰는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의 트래픽과 통계를 각각의 감시창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니터링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애 대응 신속성과 업무 편의성이 동시에 향상된다.

아울러 KT는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터미널,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1000여 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기지국 증설과 함께 품질 점검을 완료했다. /이혜민 기자

SK플래닛, 웹3 생태계 확장 나선다

오아시스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SK플래닛은 게임 특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오아시스(Oasys)와 웹3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태계 성장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SK플래닛의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인 업튼 스테이션(UPTN Station)은 오아시스 메인넷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협력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 ▲고객 혜택 강화 마케팅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아시스에 출시되는 게임의 마케팅 활동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정인철 SK플래닛 팀장은 "고객들이 웹3 환경을 더욱 쉽게 경험하길 바란다"며 "오아시스의 콘텐츠 IP를 업튼 서비스를 통해 선보이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배터리 물에 담가 화재 발생 줄인다"

SK·한화, '액침냉각 ESS 설명회'
냉각 플루이드로 화재 원천 차단
글로벌 인증 획득, 안전성 입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틸리티 전문기업 SK엔머브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불타지 않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에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 ESS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그린에너지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해양 솔루션 리더'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K엔머브는 10일 중구 한화빌딩에서 '액침냉각 ESS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사는 리튬이온배터리 모듈에 냉각 플루이드를 채워 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전기 추진선박에 공급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액침냉각 ESS는 배터리 셀(Cell) 하나가 발화해도 내부에서 차단되기에 다른 셀에 영향을 주지 않아 화재 예방이 가능하다.



10일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액침냉각 ESS' 아카데미에서 SK엔머브 서상혁 e-Fluids B2B사업실장이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기존에 ESS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랭, 수냉식 방식과 달리 냉각 플루이드로 내부를 완전히 채운 방식은 외부로부터 먼지와 염분 등의 유입도 원천 차단해 내부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거했다.

기존 방식보다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해 주요 모델 'SEAL'이 글로벌 인증 기관인 노르세베리타스(DNV), 한국선급(KR)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승현 에너지 시스템센터장은 "해양 선박용 ESS는 안전성이 필수 조건"이라며 "20년 이상

의 연구개발(R&D)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ESS 설계 능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제조 역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과충전 상태에서 배터리를 인위적으로 열폭주시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실험했다. 그 결과 불이 바로 소화됐고 주변 셀로 번지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원형 셀 사이 냉각을 위한 전해액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덕분에 효과적으로 냉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파워치형이나 캔형에서도 적용해 동일한 성능을 구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에도 나섰다. 셀의 구조를 변형하고 여러 단열 소재를 활용한 설계를 통해 파워치 셀에서도 같은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SK엔머브도 액침냉각 기술의 핵심 소재인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소개했다. 플루이드는 액체와 기체의 중간 성질을 지닌 물질로 모듈 내부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U+tv 전용 플랫폼 '한눈에쇼핑' 개편

LG유플러스가 17개 홈쇼핑 채널의 방송과 상품을 한데 모은 U+tv 전용 쇼핑 플랫폼 '한눈에쇼핑'을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IP)TV 서비스인 한눈에쇼핑은 2021년 말 출시돼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

LG유플러스는 개편을 통해 리모컨 녹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으

로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주문', 패션·미용·식품·가전 등 카테고리별 상품 검색, 할인 쿠폰 등 모든 할인 혜택을 적용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주는 '한눈에 특가' 등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카테고리별 상품 검색 기능은 방영일자·리뷰·평점·가격 등 검색 조건을 넣을 수 있어 방송 예정 상품부터 지난 방송 상품까지 원하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